

카오스 · 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작품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전임강사 박 현 신

目 次	
I. 서론	III. 의상을 통해 표현된 해체와 전복의 경향과 유형분석 및 작품사례 분석
II. 20세기 과학·예술·철학의 세계관	1. 의상의 해체와 전복의 경향과 유형
1. 과학과 예술·철학의 상보적 관계	2. 작품사례 분석
2. 카오스·프랙탈 이론과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IV. 결 론
3. 해체주의와 디자인 사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한 시대나 사회를 대변하는 과학적 사고를 근거로 형성된 세계 제작론(world-making theory), 즉 세계관(world view)은 한 시대의 제반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시대정신(zeitgeist)을 이끌어 간다.

20세기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등장하였고, 고전물리학의 환원주의나 결정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은 예술분야에서는 모더니즘에 이르러 인간소외, 인간의 물질화, 마음과 물질의 분리, 정체성의 위기라는 총체적인 문제와 마주치면서 그 한계점을 드러냈다. 세계는 이러한 문제

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paradigm)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카오스(chaos)¹⁾와 프랙탈(fractal)²⁾ 이론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열린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사고가 요구되는 건축과 디자인을 포함한 예술분야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상은 인간 사회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 현상의 하나로 과학, 철학, 예술 사상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대적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옷은 기능적인 것이

1) 카오스(chaos)는 혼돈, 혼란, 무질서를 의미하며 회랍어원상으로 혼돈의 의미는 세계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는 kluft 혹은 gas라는 말의 어원과 같다. 결정론적 카오스 이론의 현대적 시작은 1960년 이후 미국의 수학자이며 기상학자인 Lorenz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종적,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서울 : 소나무, 1995, p.49.)

2) 프랙탈(fractal)은 '부서지다'는 뜻의 라틴어 "frangere"에서 파생된 형용사 "frac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1975년 만델브로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성질, 즉 어떤 물체의 거칠거칠한 정도, 부서진 정도, 불규칙한 정도를 측정하는 소수차원의 계산방법을 기술하였다.

(제임스 클리크, 「카오스 : 현대과학의 대혁명」 서울 : 동문사, 1997, p.122.)

우선되어 인체와 “입는다”는 것의 일대일의 대응 이외의 내적 의미나 철학적 개념을 표현할 수 없는 일시적인 유행현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옷은 단순한 기능, 즉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거나 수치심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일차적인 목적이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자아를 표현하며 미적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이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개인적인 이념이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multi-dimensional) 의미를 갖는 새로운 예술의 한 형태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몇몇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은 안티패션(anti-fashion)운동을 넘어서 의상의 기능성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유행(trend)으로 가볍게 취급되어 간과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론적 배경과 타예술·디자인 분야의 상관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어, 새로운 의상의 메타언어(meta-language)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오늘날 패션으로서의 의상뿐만 아니라 타예술 분야, 특히 설치미술이나 행위예술 등에 차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상의 해체와 전복현상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속옷을 걸옷화한 패션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와 입체적인 의상을 평면화 시킨 이세이 미야케, 자신들의 공연에서 의상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행위 예술가인 샤샤 히그비와 캐롤린 브로드헤드, 설치 미술가 크리스티앙 블탕스키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품에 나타난 현상들을 카오스 이론을 기하학적인 모델로 체계화시켜 사

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등장한 프랙탈 기하학(fractal geometry)³⁾과 연결시켜 이 시대의 과학적 사고와 세계관이 의상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20세기 과학·예술·철학의 세계관

20세기에 들어와 서구문화의 지주가 되었던 확고한 형이상학적 신념과 과학적인 가설들이 깨지면서 그것에 의존하여 설명되어졌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이 아니며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은 전통과 관습, 절대가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가 서구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자연과의 대립으로써만 생기는 인간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의미하며 자연, 과학, 예술, 철학의 역동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다.

과학·철학·예술에 대한 세계관은 한 시대나 사회를 이끌어 가며, 이들의 변화는 곧 시대적 세계관의 수정을 요구하며 각 분야 특히 문화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과학과 예술, 철학의 상보적 관계를 논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 등장한 카오스·프랙탈의 기본개념과 조형원리를 살펴보고, 이 이론을 근거로 오늘날 예술 디자인 분야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해체주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 과학과 예술·철학의 상보적(相補的) 관계

과학은 세계에 대해 객관적 서술을 하며 예술은

3) 프랙탈 기하학은 카오스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언어개념으로 수학 및 자연계의 비규칙적인 패턴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하학이다. 즉 카오스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프랙탈은 자연측량,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확대, 축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종의 전체(whole)를 바라보는 철학으로 자연, 과학, 예술의 새로운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주관적 표현을 한다. 과학자가 모든 현상을 궁극적으로 물리적 현상으로서 접근한다면 작가는 삶의 내적 의미를 인식대상으로 하며, 과학이 과학적 명제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는 단정적 판단양상을 띠고 있다면 예술적·문화적 서술은 가설적인 제한적 판단양상을 갖고 있다.⁴⁾ 철학은 모든 대상을 자신의 인식대상으로 삼으며 어떤 신념에 대한 지적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인식에서 예술과 과학은 감성/지성, 주관/객관, 환영의 세계/물질의 세계 등의 언어로 표현되면서 서로 배치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상호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예술, 특히 미술은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표현된 미학적 특성을 지닌 상상력의 세계이며, 과학은 수학적 관계와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이 수와 방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세계이다. 미술은 실제의 다른 형태를 병렬하고 종합하여 정서에서 끌어낸 환영을 창조하는 반면에 과학은 분석을 통한 성분의 연계성을 밝히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미술과 상상적인 물리학(revolutionary art and visionary physics)은 둘다 연결되어진 실제세계의 단편들을 서로 적합하게 꿰어 맞추는 방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실제 세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⁵⁾ 과학과 예술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 김주미는⁶⁾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태도, 세계, 자연을 보는 방법의 유사성, 발견, 창조라는 맥락에서 상호 관계의 긴밀성,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획득된 가치와 지각방법을 윤곽하게 하고 인간의 인식론적인 시야를 넓혀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술과 과학은 둘다 말로 설명되지 못한 물질세

계에 대해 말하기를 시도하는 언어의 독특한 형태이다.⁷⁾ 미술은 기술적인 언어로 확립되지 못한 현상과 대상을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상징적인 언어로 창조하며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법칙에 의한 설명을 추구하며, 그에 대해 수와 방정식이라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며 세계를 묘사한다.

예술가와 과학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기 탐구하며 창조하지만 결과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과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각없이 작가 특유의 상징과 은유를 상상력으로 결합시켜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그들의 작업이 그후에 나타난 과학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불가사의한 면을 가진 사회의 전체적인 사유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distant early warning system'⁸⁾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철학에 의해 언어로 기술되고 설명되어짐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술, 미술과 과학은 사물을 해석하는 방법과 시각의 차이를 가질 뿐 근본적으로는 상호 관련성과 유사성이 존재하며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는 과학이론과 예술·철학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카오스·프랙탈 이론과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의 과학은 스스로 체계화하는 세계(self-organizing universe)를 제시하면서 갈릴레이(Galileo Galilei : 1564~1642)와 데카르트(Ren Descartes : 1596~1650), 뉴턴(Issac Newton : 1642~1727)에 의해 성립된 기계론적이며 결정론

4) 박이문 :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6, p.144~6.

5) Leonard M. Shlain, 김진엽 역, 「미술과 물리의 만남」 서울 : 국제, 1995, p.16.

6) 김주미, 「카오스 개념과 새로운 디자인 사고에 관한 고찰」 실내디자인 학회 6, 1995, p.29.

7) Leonard M. Shlain, p.22.

8) 앞글, p.20.

적인 이원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원주의(reductionism)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결국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환원해 보면 진상은 간결하고 선명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원상(atom, element)을 절대로 보며 일체의 현실을 원상으로 되돌리고자 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미시세계(micro-world)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세계(macro-world)로 보았다. 이 의적세계를 분석하여 미시화 했을 때 남는 최후의 모습을 궁극으로 생각하며 이를 이성(reason)으로 보았다. 이성은 미시세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원상의 본질(originality)로 보았다. 그러므로 원상에서 파생된 현상은 비본질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보았고, 이성은 현상배후에 실체(substance)를 상정하였으며 그 실체의 의미는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과 연계되어 결정론적 세계관을 낳게 한 배경이 되었다. 결정론은 존재론적 언급으로서 이 세계 자체가 결정론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다.⁹⁾

이러한 이성중심의 합리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미술은 순수주의(purism)와 추상주의(abstractism)를 추구하였고 디자인에는 구조주의(structurism)가 발생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지상주의(art for art sake)를 가져왔고 예술에서의 대중의 소외, 정체성의 상실, 인간의 물질화, 마음과 물질의 분리 등 총체적 위기를 야기시켰다.

최대의 단순성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환원주의는 전체를 보고자 하는 시각(global view)이 없으며, 시간의 과정성에 접근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시간의 과정성은 비가역적인 것(irreversible)으로 환원할 수 없는 세계이며 진동하며 약동하는 세계이다. 과정중에는 평형의 세계가 있으나 일순간적이며 평형과 질서가 최대값에 이를 때 다시 무질서로 전환하여 스스로 평형을 이루면서 질서와 무질서를 반복한다. 즉 이는 소멸되는 구조는 곧 새로운 질서를 가지는 구조로 변화되는 자연현상과 일치하는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¹⁰⁾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카오스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카오스는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운동을 함의하며 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운동은 단순히 무의미한 요동이 아니다. 숨겨진 질서(hidden order)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시 질서체제로 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하고 우연으로 보였던 많은 자연현상 속에 결정론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결정론적인 카오스의 비선형성이 바로 결정론과 환원주의의 고리를 끊는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¹¹⁾

카오스 이론은 상태보다는 과정의 과학이고 존재보다는 변환의 과학¹²⁾으로 입력의 미세한 차이가 출력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나는 초기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으로 불리는 예측 불가능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나 로렌츠 어트랙트(Lorentz attractor)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돈과 질서의 무한한 반복에 의해 형성되며 결정론적인 무작위성(deterministic randomness)을 내포한다.

9) 최종덕, 「부분의 합의 전체인가?」 서울 : 소나무, 1995, p.25.

10)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 : 자연의 모든 구조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평형구조)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소산구조)가 그것이다. 평형구조는 3차원적이며, 인공물, 즉 의자, 책상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소산구조는 4차원적이며 세포, 사람의 몸, 인간사회, 조직체들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벨기에 출신 일리아 프로그로진과의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개념으로 구조의 개념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확장시킨 공헌으로 1977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11) 앞글, pp.33~36.

12) James Gleick, 「Chaos ; 현대과학의 대혁명」 서울 : 동문사, 1997, p.15.

혼돈과 질서의 변환과정 중에 보여지는 우연성은 숨겨진 질서 구조의 외형일 뿐이며, 인식, 사고의 반복 변환의 과정은 카오스의 극에 다다랐을 때,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 최대가 되었을 때 새로운 질서체계, 즉 창조성이 출현할 수 있다. 자연의 세계는 평형(equalibrium)과 비평형(unequalibrium)이 각기 최대값에 이르렀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평형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 스스로 체계화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자연의 세계는 20세기의 과학사에 기록될 세가지 큰 업적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이 절대적 공간과 시간이라는 뉴턴 물리학의 환상을, 양자이론은 측정과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뉴턴 물리학의 꿈을 깬 것이며 카오스 이론은 예측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깬다.

이러한 사고의 시대적 변환은 새로운 시각의 사고를 요구하였고 카오스 이론을 기하학적인 모델로 체계화한 프랙탈 이론은 20세기 후반 예술, 과학, 자연의 새로운 미학으로 등장하여 열려진 세계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프랙탈은 “부서지다”라는 라틴어 “Frangere”에서 파생된 형용사 Fractus에서 유래되었고, 만델브로트(Benoit Mandelbrot)에 의해 정리되었다. 프랙탈은 불규칙하게 조각난 모양을 말하며 무한하게 세분되고 무한한 길이를 가지며 비정수 차원이며 규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닳아간다. 프랙탈 기하학과 관련된 용어로는 칸토어의 집합(cantor set), 코흐의 곡선(Koch curve), 시어핀스키 카펫(Sierpinski carpet), 시어핀스키 개스킷(Sierpinski gasket), 만델브로트 집합(Mandelbrot set), 줄리아 집합(Julia set), 로렌츠의 끌개(Lorenz attractor) 등이 있다.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

자기 유사성은 자연현상의 규칙적인 불규칙성, 즉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상세한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안의 패턴을 의미한다. 카오스 속에 일정한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선형적 특성과 점진적 반복 작용이 결합되어 카오스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자기 유사성은 프랙탈 기하학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¹³⁾

2) 무작위성(Randomness)

무작위적인 프랙탈(random fractal)의 개념은 프랙탈을 더 풍부하고 유용하게 하며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계(system)의 비예측성과 성장과정까지도 기술해 낸다. 작품속에서의 우연과 기대하지 못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 속성이 있다.

3) 프랙탈 차원(Fractal dimension)

고전 기하학에서의 정수적 방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비정수적 차원의 무리수값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무정형의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4) 비선형성(Non-linearity)

뉴턴의 인과적인 결정론의 영향으로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연현상은 비선형적이며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을 가지며 작은 변화가 예측하지 못한(unpredictability)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5) 불규칙성(Irregularity)

자연의 발생 구조는 생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확산되어 다양한 형태가 반복, 축소, 왜곡, 변형된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예술작품

13) 김희수, 「프랙탈 기하학의 이해와 디자인에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4.

에 있어서 질서와 혼돈, 성장과 정체의 팽팽한 긴장을 유발시키며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6) 자기조직(Self-organization)과 응집성

자연은 질서와 무질서의 반복 속에서 타자로부터의 어떤 질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형과 질서의 최대값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평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상에서 처럼 카오스·프랙탈 이론은 오늘날과 같이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 지나간 경험에 대한 단지 순간적인 앎이 아닌, 또는 하나의 과학적인 구조 안에서 사건들을 예견하는 능력이 아닌 일종의 시공간간의식(spacetime consciousness)¹⁴⁾를 소유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카오스·프랙탈적 시각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열린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문제인식과 함께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이 되고 있다.

3. 해체주의와 디자인 사고

뉴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이론적 갈등 속에서 등장한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며,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을 설득력 있는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예술과 건축에 관한 개념이었던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해체주의적 성향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¹⁵⁾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길로 드러난

의양보다는 근저에 숨어있는 어떤 체계나 법칙을 찾아 전체적인 “구조”(structure)만을 중요시함으로써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독선에 빠지기 쉬운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인 근원(origin), 중심(center), 현존(presence) 등과 로고중심주의(logocentrism)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주의의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construct)해 놓은 것들을 그 근본부터 해체(deconstruct)하는 것이 된다.¹⁶⁾ 해체주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인 사고의 목적은 언어, 해석, 철학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본질(wesen, essentia, ousia)적인 면에 대한 거부를 가능케 할 것이며 그래서 그 거부의 결과 다른 표현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부는 과거-형이상학의 역사-를 잊어버린 아방가르드적인 제스처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형이상학의 역사가 철학 그 자체의 표상(presentation)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즉 이것은 미묘하고 정교한 내부로부터의 해체 작업이며, 닫힌체계(closed system)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 사고와 열린사회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서비스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형태적이고 물리적인 오브제 디자인의 전통적인 활동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는 변화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작용하며¹⁸⁾ 오브제 너머에(beyond ob-

14) Shlain, 「미술과 물리의 만남」

15) Peter Noever, 김경준 옮김,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1」 서울 : 청람, 1996, p.11.

16) 김성곤 편저,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88, p.22.

17)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92, p.56.

18) C. Thomas Mitchell, 한영기 옮김, 「다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서울 : 청람, 1996, p.32.

ject)에 있다. 해체주의적 디자인의 사고방법은 중첩, 형태의 왜곡, 크기의 변환,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전위, 분열 등을 통한 의적인 형태의 해체가 아닌 내적 의미의 갈등요소를 이끌어내어 그 텍스트가 결코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¹⁹⁾는 것을 보여준다.

Ⅲ. 의상을 통해 표현된 해체와 전복의 경향과 유형분석 및 작품사례 분석

과학이 제시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예술, 디자인에 대해 열린 세계의 추구라는 새로운 조형관을 요구하고 있다. 해체의 기본적인 이론은 자크 데리다의 철학적 입장을 근거로 서구의 전통적인 사유 방법에 대한 비판 방식으로 현대 물리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프랙탈 미학은 무질서와 불안정을 그대로 포용하면서 그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찾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탐구²⁰⁾ 방법이며 예술과 디자인 영역에서 나타난 해체적 경향은 전통의 구조적인 체계를 거부하고 제거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새로운 구조와 사고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철학 사조와 특정한 예술의 실천적인 역동성간의 관계는 묘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의상에 있어서의 해체는 엄밀하게 말해 의상의 구조와 더불어 철학에 의해 조직된 관념뿐만 아니라 이론, 실행 등에 의해 지배되는 의상개념의 철학적 구조를 해체한다.

전통적으로 의상에 있어서 구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체를 위한 구조와 입는다는 기능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융합되어 유지해 왔다. 즉 의상에 있어서 기능과 상징, 미적 형태는 기호와 의미의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 의상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음”의 개념이 변질되면서 옷의 의미문제는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입는 방식에 대해 저항하는 안티패션 운동을 넘어서 옷의 기능성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의상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들은 의상의 정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조와 조화 등의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며, 또한 기능성, 보온성, 정체성의 상징, T.P.O 개념이나 성의 문제 등의 관습적인 편견들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상 언어”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의의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신체의 문제와 함께 설치미술이나 행위예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작가들은 옷속에 함축된 내적 의미들의 갈등들을 해체, 전복시켜 옷이 결코 “입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의미작용을 하는 다중코드임을 보여주고 있다.

1. 의상의 해체와 전복의 경향과 유형

1) 옷의 정상적 관계의 비정상적 관계로의 전복
 옷의 정상적인 관계란 인체 구조 조건을 전제로 한 위와 아래, 안과 겉, 부분과 전체의 관습적인 관계와 옷에 의한 성의 구분, T.P.O에 따른 옷의 역할의 일상적인 관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전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안과 겉, 즉 의복의 구성상 안쪽에 위치하던 박음선이나 시접 혹은 라벨 등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부터 장 폴 고티에가 디자인한 가수 마돈나의 무대의상에서 처럼 속옷이 겉옷화 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다양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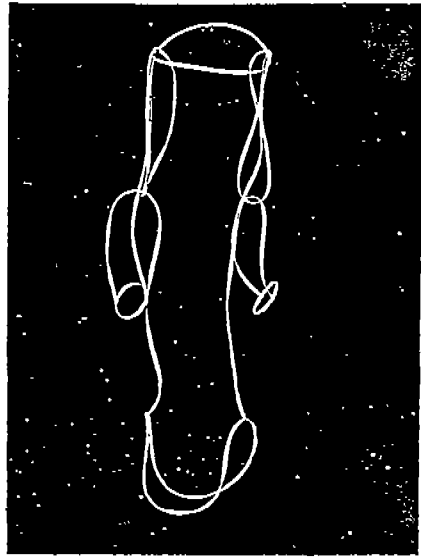
상의와 하의의 위치와 형태 및 역할이 바뀌거나 옷의 각 부분들을 분리시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19) 이광래 편, p.11.

20) 김주미, 카오스, 「프랙탈의 창조적 속성과 환경디자인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그림 1) Jean Paul Gaudier, 가수 마돈나의 무대의상, 1990



(그림 2) 캐롤린 브로드헤드, 숄기선, 1986

예기치 못한 조합을 하기도 하며, 옷의 구조선만을 부각시켜 옷의 기능적 역할을 제거하기도 한다(그림 2). 또한 정석적인 의복 구성과 재단법을 무시하거나 변형시켜 인체의 모습을 왜곡하여 옷과 인체의 전통적인 관계를 떠난 조형성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3).

2) 옷의 입체적 구조의 평면적 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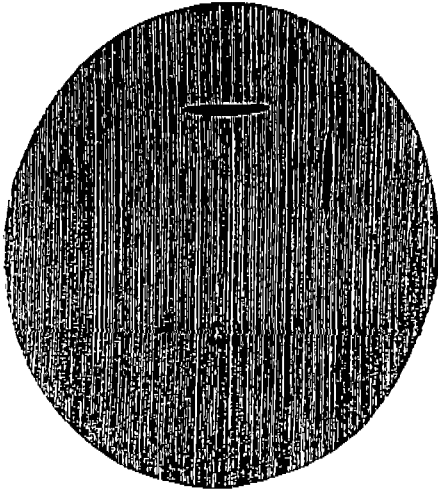
모더니즘 사고 하에서 옷의 역할은 인체의 구조를 중요시한 기능성이 강조되어 입체재단의 발달을 가져왔고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고는 옷의 구성법을 무시하여 소매선, 다프선 심지어는 목선까지 제거한 평면형의 옷을 등장시켰고(그림 4), 이 해체된 평면형의 옷들은 인체위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각한 듯한 모습으로 형태감을 주며, 움직임과 역동성에 의해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완성된다(그림 5). 이는 옷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초기에 동물가죽이나 한장의 천으로 몸을 덮거나 둘러싸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이는 디올의 뉴룩이 질서의 정점이라고 볼 때 무질서로의 환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이세이 미야케

3) 재료와 기법의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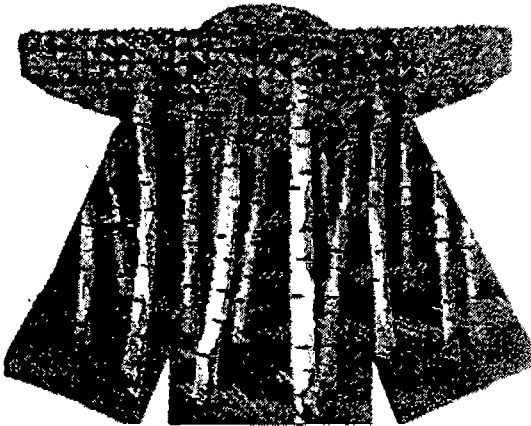
전통적인 옷의 재료인 옷감을 찢고, 겹치고, 구멍을 내거나 덧대는 등의 방법으로 재구성, 재조합하여 새로운 질감의 재료로 재창조되기도 하며(그림 6), 전혀 새로운 재료, 예를 들면 종이, 비닐, 금속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거의 모든 오브제들이 사용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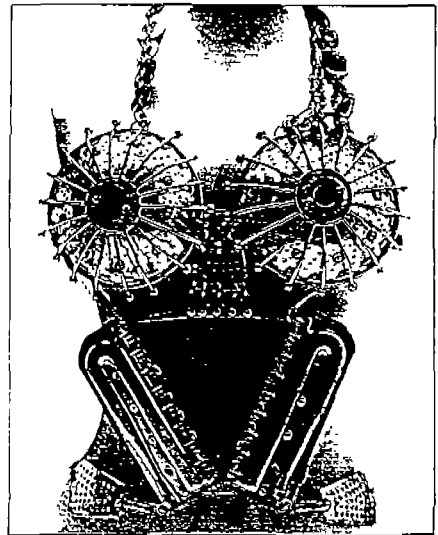
(그림 4) 이세이 미야케



(그림 5) 이세이 미야케



(그림 6) Tim Harding, 1988



(그림 7) Regine de La Hey, Steaming Hot,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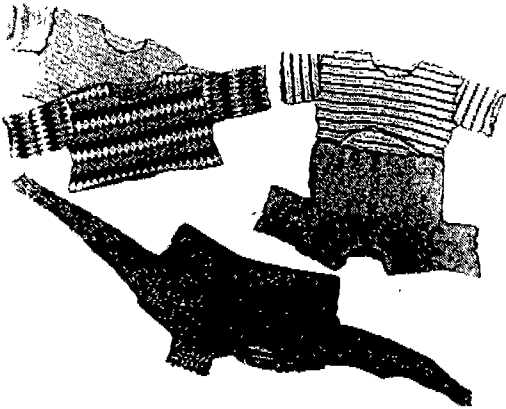
한다(그림 7). 또한 전통적인 바느질의 방법은 더 이상 옷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제작 방법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4) 전체의 부분으로의 분화에 따른 구별이 불가능한 전체로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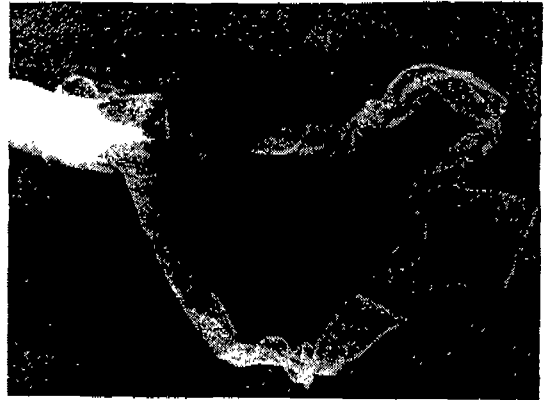
옷은 하나의 목, 두 개의 팔, 하나의 몸통, 두 개의 다리 혹은 하나의 하의를 조합하여 전체를 이

루어 “입음”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러개의 목, 팔, 몸통, 다리 등이 부분으로 분해되어 하나의 옷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림 8) 부분과 부분 사이의 비정상적인 연결(그림 9)은 입는 기능에 대한 일대일의 대응이 불가능한 전체로 제시된다.

5) 인체의 부재화 및 부속화 현상
이 현상은 패션디자이너들보다는 예술가들에



(그림 8) 박현신, 어어 어떻게 입지??? I, 1996



(그림 9) Marian Schoettle, 옷의 수수께끼

의해 옷이 차용되어 그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옷은 인체를 전제로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옷으로부터 인체를 제거하여 옷과 인체의 관습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인체를 옷을 위한 구조물로 전락시키고 조각과 같은 형태를 만들며 옷에 대한 열린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2. 작품사례 분석

1)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

장 폴 고티에는 의상에 다양한 해체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디자이너 중의 한사람이다. 대표적인 작품인 가수 마돈나의 무대의상(그림 4)에서는 옷의 안과 겉, 즉 속옷의 겉옷화를 통하여 은폐와 노출의 양면가치를 보여주었으며, 옷이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며 성(gender)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여 성의 해체와 통합을 시도하여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여(그림 11) 기존 패션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했다.

이들 옷에서는 가슴과 몸통의 누빔과 겹쳐지는 주름에서 안쪽으로 작아지는 형태의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 옷에 대한 개념적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 체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그는 상의와 하의의 위치전환을 시도하거



(그림 10) Suzan Etkin, Dry clean, 1990~1991

나 갑옷의 일부분과 그리스 시대의 키톤과 같은 형태의 옷의 접목, 컴퓨터 칩의 사용 등을 통해 패션의 의의성을 보여 주었다.

2)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은 일반적인 개념의 완성된 형태(입체적 구조)의 옷이 아닌 미완성의 상태(평면적 구조)로 새로운 가능성과 의외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옷은 얼핏 보기에는 미니멀리즘의 회화작품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처리되어 인체의 구조와 그에 따른 구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목선과 소매선조차도 구별할 수



(그림 11) 장 폴 고티에, Barbés, 1984~85 A/ W

없는 완전한 평면형이다(그림 4). 이 단순한 도형은 인체 위에서, 그러나 결코 인체와 일치되지 않는 3차원의 공간에서 입체적이며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게 된다(그림 5). 이 일련의 작품들은 미완성의 상태인 동시에 옷으로서의 구조적인 불확정성이나 애매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착용자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3) 샤샤 히그비(Sha Sha Higby)²¹⁾

행위 예술가인 샤샤 히그비는 공연의상을 나무, 실크, 종이, 유리, 끈, 철사 등의 수많은 재료를 동원하여 제작함으로써 옷에 있어서의 재료사용에 대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작위로 선택된 재료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무표정한 가면의 앞면과 뒷면에서 단순함과 복잡함의 대비를 강조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두세가지의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패턴의 내부공간을 비워들음으로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비



(그림 12) 샤샤 히그비, 후추나무 아래의 소들, 1986

선형적이며 프랙탈차원의 외곽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히그비는 의상을 몸을 덮는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12).

4) 캐롤린 브로드헤드(Caroline Broadhead)

브로드헤드는 의상과 그것이 지각되어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한 예술가들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의상이 단지 패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의해 형성되어졌다는 생각으로 의상의 내밀한 면에 관심을 두었다. 골격(skeleton)의상 시리즈에서는 가정적 상태와 움직임, 몸짓, 열망과 딜레마를 삼차원적인 라인드로잉(line drawing)으로 창조하는데 봉채선을 이용하였다(그림 5). 비결정적인 스타일의 길게 늘어진 셔츠인 "Stretch"에서처럼 묘사하고자 하는 감정의 상태나 딜레마는 특별한 것이다.²²⁾

옷을 기본적인 구성선과 외곽선의 삼차원적인 선으로 분해하여 공간적인 중첩의 효과와 함께 비

21) 「Ornament」, Vol. 15. 1992 spring. p.40~5.

22) Chole Colchester. 「The New Textile—trends and tradition—」 1991. p.140~1.



(그림 13) 캐롤린 브로드헤드, 겹침, 1990



(그림 14)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저장고 : 죽음의 바다
선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옷 위에 무작위로 핀
을 꽂음으로서 형태의 비결정성을, 중첩된 이미지
로 시간의 과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5)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볼탕스키의 작품에서 일상적인 오브제인 수많은 옷들은 전시공간 내에 형태도 없이 구겨진 채 쌓이고 중첩되어 삶의 기억과 옷을 입었던 익명의 어떤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증거나 흔적만이 존재할 뿐,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되어 있다. 각기

다른 개체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은 뒤섞여 설치된 한 작품 속으로 사라진채 새롭게 오브제화 되어 있다.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유사한 형태의 옷 수백, 수천벌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서로 중첩되고 설치 공간과 시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작품이 된다.

특히 볼탕스키의 작품에서 옷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현실성이 상실됨과 동시에 옷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삶의 흔적 혹은 기억이라는 무의식적인 차원의 새로운 의미를 통해 옷의 감추어진 내적 의미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14).

IV. 결 론

20세기에 들어와 확고하던 서구의 형이상학적 신념이나 기계론적이며 결정론적인 과학적 가설들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설명되어졌던 모든 현상과 사고들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반성은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카오스·프랙탈 이론은 새로운 가치관과 열린 세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20세기 후반을 이끌어 가는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 등장하여 해체주의 철학의 과학적,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가치관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특히 예술과 디자인은 열린 자세와 사고로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처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가치나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그 거부를 통해 또 다른 표현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상에서도 역시 시대정신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이 1970년대 이후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해 저항하는 안티패션 운동을 넘어서 옷의 기능성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 의해 작품

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은 옷의 안과 겉, 위와 아래, 부분과 전체라는 정상적 관계를 비정상적 관계로의 전복하거나, 입체적 구조를 무시한 평면화 현상과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사용으로 질감과 제작방법의 유연성을 추구하며, 전체를 부분으로 분화시켜 재구성함으로써 구별이 불가능한 전체(옷)를 제작하거나 인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옷에서 인체를 제거, 혹은 부속화 시키는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해체주의적 의상의 사고는 무엇이며 그 철학적 연결고리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의상을 단순히 입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갖는 다차원적인 다중코드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곤 편저,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98
- 김주미, 카오스 개념과 새로운 디자인 사고에 관한 고찰, 실내디자인학회 6, 1995
- 김주미, 카오스 프랙탈의 창조적 속성과 환경디자인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김희수, 프랙탈 기하학의 이해와 디자인에의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박이문,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6
-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92
- 최종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서울 : 소나무, 1995
- Chole Colchester, The New Textile—trends and tradition—New York : Rizzoli, 1991
- C. Norris & A. Benjamin, 해체주의?, 서울 : 청담, 1996
- C. Thomas Mitchell, 한영기 옮김, 다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서울 : 청담, 1996
- Far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London : Thomas and Hudson, 1996
- Ilya Prigogin, Isabelle Stengers,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 고려원, 1993
- James Gleick, 박배식·성하운 옮김, Chaos—making a new science—, 서울 : 동문사, 1997
- Peter Noever, 김경준 옮김,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1, 2, 서울 : 청담, 1996
- John E. Brigham tran, The graphic work of M.C Escher, New York : Random House, 1996
- Lavrence Bénäim, Issey Miyake,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7
- Leonard M. Shlain, 김진엽 역, 미술과 물리의 만남 1, 2, 서울 : 국제, 1995
- 월간미술, 1997년 2월
- Fiber Art, 1993~1997
- Ornament, 1993~1997

ABSTRACT

A study on deconstruction of costume based on Chaos Fractal Theory
— Focused on analysis examples of costumes work —

On this thesis, the focus is that studying costumes which have been affected by deconstructionism that is based on chaos and fractal theory. Chaos and fractal theory is accepted as a new paradigm for open world which is changing very vast and fast. And this theory is needed for artists and designers who should have spacetime consciousness and open mind and attitude toward open world.

In the results, various costume types of deconstructionism have been shown by fashion designers and artists' works. Those are as follows :

1. normal relationship of costume changes to abnormal relationship

2.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costume changes to two-dimensional structure.

3. open to materials and techniques.

4. separated costume parts reconstruct as ambiguous whole on function.

5. body absence and accessorizing.